

20세기 후반 한국 여성 스타의 얼굴 이미지와 패션을 통해 본 이상적 여성미의 변천

백 경 진 · 한 소 원 · 김 영 인⁺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Chronological Changes of Women's Ideal Beauty through Facial Image and Fashion of Korean Actress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Kyoung-Jin Baek · So-Won Hahn · Young-In Kim⁺
Doctoral Course,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Researche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투고일: 2012. 1. 2, 심사(수정)일: 2012. 3. 14, 게재확정일: 2012. 4. 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template chronological changes of Korean actress facial image and fashion from 1960s to 1990s and to identify Korean women's ideal beauty reflected through the times. Adjectives describing representative actresses of each studied decade were collected from major newspapers and magazines. Korean women's ideal beauty was divided into 4 sub-types such as youthful, pure, sophisticate, and sexy images. As a result of analyzing actress facial image and fashion, youthful and pure beauties were found consistently over the studied periods.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sophisticate and sexy beauties have been changed over the studied periods which were influenced by socio-cultural environment factor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provide meaningful sources for historical drama, celebrity marketing strategy planning, and personal image consulting.

Key words: woman's beauty(여성미), facial image(얼굴 이미지), fashion image(패션 이미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이상적인 여성미(美)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 아름다움이나 매력과 같은 심미적인 것의 기준은 문화적 맥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여성들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아름다움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¹⁾ 특히 TV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등 대중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여성 이미지들은 관념적 여성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특정 시대를 대표하는 대중스타의 스타일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한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을 시대적 특성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한국여성들은 일제에 의해 왜곡된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현모양처형 여성상에 갇혀 있었으며, 6.25 이후에는 대중문화의 기틀이 약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진 미국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미국식 여성상이나 미국 대중스타의 모습에서 이상적 여성 이미지와 이상적 스타일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는 경제 발전과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영화나 TV드라마를 통해 등장한 국내여성 스타의 이미지나 스타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대중스타의 영향력이 막대해져 그들이 착용하는 아이템이 유행되고 곧바로 판매와 직결되면서 패션 뿐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스타를 활용한 스타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대중 스타의 영향력은 최근 한류의 열풍으로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에까지 미치게 되어 과거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들이 세계 여성들에게 이상적 여성 이미지를 제시해온 것처럼 한국적 여성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여성미에 대한 관심을 지속화하기 위해서는 한류의 초석이 된 K-pop이 서양의 대중문화를 한국식으로 세련시켜 새롭게 만들어낸 것과 같이 세계적으로 통하는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이 가미된 여성 이미지의 제안이 필요한 시점

이다.

지금까지 의류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이상적 여성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문화적 배경과 패션, 헤어, 메이크업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²⁾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앞의 연구들의 대부분은 시대적 특성과 스타일의 전반적 특징을 살펴본 것이 많았으며 사회적 배경과 스타일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였다. 최근 들어 여성 문화와 밀접한 사회적 배경과 패션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김영희, 박혜원³⁾은 1970년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이미지와 그에 따른 메이크업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이하나⁴⁾는 1970년대 한국의 이상적 여성상을 분석하고 동시대 패션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의 연구들은 특정 시대만을 연구하고 있어 시대별 비교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대중스타와 이상적 미와 관련된 연구⁵⁾는 주로 할리우드 스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스타를 중심으로 한 연구⁶⁾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연구 범위가 대부분 1990년대 이후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1960년부터 1999년까지의 한국 여성 스타에 대한 자료 수집과 고찰은 한국 여성이 추구하는 한국적 여성미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중문화에 묘사된 여성의 이미지를 패션, 메이크업, 헤어를 통해 비교 분석하여 여성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 또한 같은 여성미라도 시대별로 개념과 연출 방법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2. 연구방법

대표 여성 스타는 1962년부터 발표된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의 연도별 영화 순위와 1992년부터 발표된 '닐슨미디어 리서치'의 TV 드라마 시청률 순위를 바탕으로 1차 선정하였다. 대표 여성 스타를 1차 선정한 결과, 2000년 이후부터는 영화나 TV 드라마의 흥행이 소수의 여배우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대표 여성 스타를 선정하기 위해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대중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1960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로 제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대표 여성 스타와 주요 활동시기

여성 스타 시대	엄앵란	문희	남정임	윤정희	이영옥	유지인	정윤희	장미희	원미경	이미숙	이보희	강수연	김혜수	이미연	심혜진	최진실	신은경	심은하	전도연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표 2〉 이상적 여성미의 형용사 수집 및 범주화

1차 형용사 수집 (대표 형용사들)	형용사	범주화	대표 형용사
	1단계	2단계	3단계
깜찍한, 귀여운, 밝은 예쁜, 인형 같은	깜찍한 예쁜	깜찍한	발랄한
발랄한, 활발한, 명랑한, 생기 있는 자연스러운, 친구 같은, 다정다감한	발랄한 친근한	발랄한	
옛된, 상큼한, 싱싱한, 어린 특 쏘는 듯한, 각쟁이 같은, 새침한	옛된 새침한	옛된	
또랑또랑한, 초롱초롱한	또랑또랑한		
청순한, 청초한, 순수한, 맑은 깨끗한, 깔끔한, 투명한, 청결한	청순한 깨끗한	청순한	청순한
가련한, 가냘픈, 어린, 우수어린	가련한	가련한	
암전한, 소녀 같은, 수줍은, 온순한	암전한		
당찬, 솔직한, 당당한, 시원시원한	당찬	당찬	세련된
적극적인, 저돌적인, 도전적인, 정열의	도전적인		
X세대의, 청춘의 신세대의, 신여성의	신세대의		
학구파의, 똑똑한, 흥명한, 지적인	지적인	지적인	
성숙한, 세련된, 프로의	성숙한	분명한	세시한
현대적인, 서구적인	현대적인		
차가운, 카리스마, 철저한, 분명한	카리스마		
선머슴 같은, 중성적인	중성적인	중성적인	
요염한, 요기어린, 개방적인, 퇴폐적	요염한	요염한	세시한
성적매력의, 육감적인, 글래머러스한	육감적인	육감적인	
건강미, 건강한	건강한	건강한	

선정된 여성 스타들을 대상으로 각각 한국 여성 패션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하여 대표 여성 스타를 최종적으로 19명을 선정하였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던 한국 여배우들의 트로이카 체제가 1980년대 후반부터 사라지기 시작해 1990년대 수많은 여성 스타가 등장함에 따라 영화나 TV 드라마의 흥행이 소수의 여배우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1990년대에 활동한 여성 스타의 수는 1960~1980년대에 비해 많은 수가 선정되었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대표 여성 스타와 주요 활

동 시기는 〈표 1〉과 같다.

이상과 같이 선정된 시대별 대표 여성 스타를 대상으로 얼굴 이미지와 패션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얼굴 이미지라는 용어의 정의는 메이크업, 헤어, 얼굴의 형태적 특성에 의해 형성되고 전달되는 이미지이다. 시대에 따른 이상적 여성미에 영향을 미치는 얼굴의 형태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에 의해 형성되는 뷰티 이미지에 비해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의 얼굴 이미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상적 여성미를 분류하기 위해 최종 선정된 19명의 여성 스타를 표현하는 형용사들을 일간지(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일보, 경향신문)와 영화 전문지 '씨네21'로부터 수집하였다. 이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형용사를 중심으로 상호 유사성에 기초한 의미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형용사를 단계별로 범주화시켰다. 이후 단계별로 범주화한 형용사들을 대표할 만한 형용사 선정 과정을 통해 한국의 이상적 여성미는 <표 2>와 같이 '발랄한' '청순한' '세련된' '섹시한'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II. 시대별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얼굴 이미지와 패션

1. 1960년대

1960년대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활발한 변화가 이루어진 변혁의 시기였고, 특히 사회적으로는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을 겪은 정치적 격동기였다.⁷⁾ 군사정변 이후 출범한 제3공화국에 의해 1차(1962~1966년), 2차(1967~1971년) 경제개발 5년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한국 경제는 놀라우리만큼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생활수준도 향상되면서 국민 문화수준의 지표가 되는 전기, 전화, 신문, 텔레비전, 전기기구 보급이 확산되었다. TV 전파를 타고 방영된 획일화되고 평준화된 복식 문화는 빠른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한국 사회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이때부터 신문사들의 주간지 발행과 <화장계(향장)>, <여원>, <여성동아> 등의 여성지가 창간되면서 유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⁸⁾ 또한 1960년대는 한국영화의 황금기로 영화사상 최초로 1천500편이 넘는 영화가 상영되었고,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제작되었다. 영화에 등장한 여배우들의 의상과 화장은 당시 여성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60년대 군사정권이 정국을 안정시켜나가면서 1960년대 초반 정체되었던 패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으며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과도기적 상황은 패션의 다양성으로 표현되었다. 그 중 미니스커트는

가장 대표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여성의 자유를 상징함과 동시에 실용성이 충족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당시 신세대 여성들의 표현에 대한 욕구는 머리 모양에서도 나타나, 1960년대 대표적인 헤어스타일은 머리카락을 굵은 빗으로 빗어 부풀린 일명 '후카시'라고 불리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크라운 봄베이지 스타일'이라고도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정수리 부분에 볼륨감을 넣어 변화를 주었으며 과도한 볼륨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발이 유행하기도 하였다.⁹⁾

한편, 국내 화장품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색조 화장품의 제조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여성들의 화장이 변화하였다. 그 중 파운데이션의 등장으로 지나치게 하얗게만 표현되었던 이전의 부자연스러운 가루분 화장이 자연스러운 피부 톤으로 변하였다. 반면 피부 표현을 제외한 다른 화장 방식은 인위적이었다. 해외 영화의 영향을 받아 서양 여성의 뚜렷한 얼굴 윤곽을 동경하게 되면서 서구식 메이크업을 모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여성의 평면적 얼굴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쌍꺼풀이 있는 듯한 효과를 내거나 인조 속눈썹으로 눈을 커보이게 하였으며 블러셔로 얼굴에 입체감을 주는 입체 메이크업이 도입되었다.¹⁰⁾ 이처럼 1960년대 얼굴 이미지와 패션이 인위적으로 표현된 데 대해 김희숙¹¹⁾은 서양의 미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 미의 기준이 혼란스러워 서양의 입체적인 모습을 모방하는 데 급급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2. 1970년대

1970년대는 경제 성장을 발판으로 교육, 의료, 보건, 주거환경, 교통, 체신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다. 1974년 오일쇼크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으나 우리나라 제조업계는 섬유업을 중심으로 최대의 호황을 맞아 우리나라 무역의 기초가 되었다. 전국 곳곳에 고속도로망이 설치되어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묶였고 자동차 대중화로 주요 지역들이 안방에서 전화다이어얼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마을 운동으로 낙후된 농촌사회를 개혁시켰다. 건강보험 혜택, 초등학교 교

육 완전 무상화, 방송통신 교육 등 1970년대는 경제 성장에 알맞은 선진사회 구현을 위한 각종 사회정책이 시작되었던 시대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대량소비생활 시대에 접어든 시기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슈퍼마켓이 등장하고 백화점이 대형화·대중화되었고 종합소매상적인 대형 시장이 등장하였다. TV의 대량보급은 국민들의 생활과 의식 세계에 영향을 주어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일으켰다.¹²⁾

한편 1970년대는 기성복 산업의 발전으로 이전 시대보다 훨씬 다양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¹³⁾ 그 중 핫팬츠는 당시 유신체제 속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의 미니스커트만큼이나 전파력이 강하였다. 이와 반대로 1960년대 말에 당시 유행하던 미니 스타일에 대한 반동으로 무릎 밑으로 다시 내려온 미디와 발등을 덮을 정도의 맥시 길이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에 이어져 다양한 길이의 스커트들이 공존하면서 핫팬츠와 함께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¹⁴⁾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성장하면서 청년 문화가 발전하였는데 통기타 가수, 하이틴 영화와 청춘 영화의 주인공들의 영향과 전세계적인 유행과 더불어 청바지는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청바지의 인기로 T셔츠와 니트 등과 함께 자연스럽게 캐주얼한 유니섹스 룩이 유행하였다. 패션과 더불어 머리 모양과 화장 기법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졌다. 머리 모양은 조형적으로 만들어졌던 1960대와 달리 짧은 커트에 자연스러운 컬이 가미된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스타일은 쉐기 커트이다.¹⁵⁾ 화장 기법도 1960년대 서구적인 눈매로 보이기 위해 아이 라이너로 과장되게 눈가를 강조하던 기교적인 아이 메이크업에서 아이새도를 사용한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메이크업으로 변화하였으며¹⁶⁾ 눈과 눈썹 사이를 넓혀 아이새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눈썹을 다듬어 둥근 아치형으로 그렸다.¹⁷⁾ 화장색채도 피부색에 가까운 파운데이션, 진달래 핑크빛의 입술, 연한 갈색이나 핑크색의 아이새도로 은근하고 고상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¹⁸⁾

3. 1980년대

1980년대는 1979년의 석유 파동이라는 경제적 난

제 속에서 막을 열었다. 그러나 점차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소비문화가 발달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크게 늘었으며,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천 달러에 달했고, 1985년 5월을 기점으로 한국의 자동차 대수가 1백만 대를 돌파하는 등 경제 호황기에 이르게 되었다.¹⁹⁾ 1980년대의 가장 큰 변화로는 컬러 TV의 보급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의상에서부터 주택, 빌딩, 자동차, 지하철은 물론 식탁에서도 색깔을 의식하게 하는 등 의식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 생활문화 패턴을 변화시켰다. 컬러 TV의 등장으로 화려하고 뚜렷한 이목구비의 서양형 얼굴이 선호되면서 광고 모델의 이미지가 동양형 미인에서 서구형 미인으로 변화하였고 계란형 얼굴보다는 입체적 얼굴에 체형이 마른 서구형 모델이 인기를 끌었다. 한편 1986년 아시아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로 해외여행 자유화, 수입 자유화 등으로 국제적인 교류를 증가시키는 기회가 되었고 우리의 소비문화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또한 안정적 경제 성장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도 높아져 개인의 취향도 다양화, 개성화되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민감도가 높은 패션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83년 교복 자율화는 국내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와 진 브랜드의 성장을 가져왔다.

1980년대의 패션은 매우 다양해졌으며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유니섹스 스타일이다. 사회적으로 전문직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활동성에 대한 요구가 바지를 여성 정장으로 착용하게 하였다. 바지의 착용은 여성 활동을 더욱 증가시키고 남녀평등을 가속하였으며 이후 어깨에 패드를 넣어 강조한 여성복으로 표현되었다.²⁰⁾ 남성 외모에 대한 모방은 화장과 머리 모양에서도 나타났다. 활동적이고 힘찬 여성을 표현하기 위해 굵고 진하며 각진 눈썹이 유행하였는데 당시 유행하였던 각진 어깨와 직선적인 실루엣의 패션과 관련지을 수 있다. 머리 모양도 뒷머리를 클리퍼로 짧게 밀어 올린 핑크 헤어와 같은 중성적인 헤어스타일과 앞머리를 높고 뾰뾰하게 세우는 일명 '자존심 머리'가 유행하였다. 특히 '자존심 머리'는 앞머리의 높이가 여성의 자존심과 비례한다고 하여 최대

한 높고 뾰뚱하게 세우는 게 유행이었으며 이로 인해 헤어 무스나 스프레이 등 헤어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였다. 또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캐주얼이 유행하였으며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스포츠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²¹⁾ 컬러 TV의 보급으로 화려하고 밝은 색상이 유행하였으며 패션뿐 아니라 화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컬러 TV의 등장 이후 립스틱, 아이섀도, 볼렌지 등 색조화장품의 판매가 증가되었으며 기법 중심의 화장에서 컬러 중심의 화장으로 변화하였다. 화장품 회사에서는 다양한 룩의 컬러 메이크업들을 선보였으며 특히 브라운 계열의 아이섀도와 레드 립스틱, 핑크와 퍼플을 기조로 한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²²⁾ 또한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게 되면서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서양의 미를 이상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서구인처럼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한 입체 메이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4. 1990년대

1990년대는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의 붕괴라는 영향 아래 국내에서는 문민정부의 수립과 대중문화의 성장으로 대표되는 급변하는 시기이다. 또한 1990년대에는 신세대 또는 X세대라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면서 여성의 이미지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여성상이 등장하였다.

한편 1990년대는 세계적인 에콜로지의 열풍으로 천연 소재나 편안한 실루엣의 패션들이 유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화장도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공감대 아래 '자연스러운 화장'을 추구하면서 브라운, 그린, 오렌지 등 자연색이 사용되었다. 또한 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화장이란 얼굴의 결점을 커버해 주면서도 화장한 티가 나지 않는 것으로 피부표현에서부터 눈, 입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화장의 과장을 거치지만 화장을 안 한 듯이 보이게 하는 화장으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화장의 기술이 진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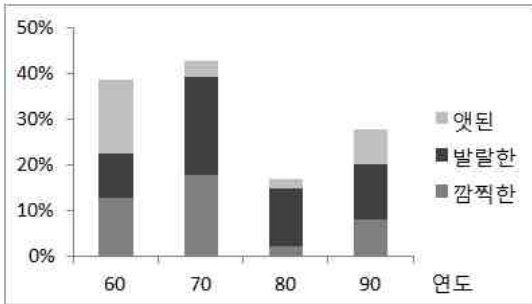
또한 1990년대 말에는 정부의 과도한 개방화와 경제 정책과 사치성 소비로 IMF 경제 위기를 맞으면

서 여성의 패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늘씬한 각선미가 돋보이는 스커트 정장은 퇴조하고 활동성이 강조된 바지 정장이 유행하였으며²⁴⁾, 여성의 화장 역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그레이, 퍼플, 다크 레드 등 대체로 어두운 색상을 사용한 차분한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²⁵⁾ 이러한 경향과 함께 1990년대 말에는 밀레니엄의 영향으로 우주 공간을 연상시키는 듯한 메탈릭 컬러 아이템들이 등장하였고 금속적인 광택과 혼합되어 신비감을 나타내거나 눈과 입술에 필을 사용하여 투명하고 반짝거리는 느낌의 일명 사이버 메이크업, 필 메이크업, 샤이니 메이크업 등이 유행하였다. 1990년대의 머리 모양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탈 유행의 시대라 불릴 만큼 그 어느 시기보다 정형화된 스타일이 없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들은 패션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행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취향을 고려한 헤어스타일을 선호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보브 스타일의 심플한 라인이 유행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 퍼머넌트의 오랜 유행으로 인한 갈증해소용으로 등장한 스트레이트 퍼머넌트는 1990년대에 들어서도 꾸준히 유행하였다. 헤어 색상은 1990년대에 들어서 더욱 다양해졌으며 머리 전체를 밝은 갈색으로 염색하거나 블리치와 하이라이트를 해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색상으로 염색하였다. 얼굴 이미지와 패션을 함께 고려하여 시대별 특성을 고찰한 것은 아니지만, 1990년대 들어 개성적이면서도 표정 있는 얼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용미²⁶⁾의 연구와 일치한다.

Ⅲ. 이상적 여성미의 시대별 변천

1. 발랄한 여성미

발랄한 여성미는 1980년대를 제외한 1960, 1970, 1990년대에 여배우들을 통해 많이 보인 여성미로 그 중에서도 1970년대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1970년대 발랄한 여성미가 여성 스타를 통해 많이 나타난 것은 세대의 감수성을 드러내는 하이틴 영화나 청춘 영화를 통해 청순발랄한 10~20대 여성상이 인기를



〈그림 4〉 발랄한 여성미의 시대별 변화

끝었기 때문에 해석된다.

발랄한 여성미는 세부적으로 감직한/귀여운/예쁜/인형같은 등의 형용사를 통해 표현되는 감직한 이미지, 발랄한/활달한/친구같은/다정다감한 등의 형용사를 통해 표현되는 발랄한 이미지, 옛된/신선한/싱그러운 등의 형용사를 통해 표현되는 옛된 이미지로 구성된다. 시대에 따른 발랄한 여성미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1960년대에는 감직하고 옛된 이미지가, 1970년대에는 명랑하고 발랄한 이미지가 주를 이루었다. 1980년대 접어들면서 발랄한 여성미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1990년대 다시 발

〈표 3〉 발랄한 여성미의 시대별 특성

시대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대표 여성상	발랄하고 감직한 여성상	명랑하고 발랄하면서 청순한 여성상	귀엽고 톡톡 튀는, 발랄하면서 친근한 여성상
대표 여성 스타	남정임	이영옥	최진실, 전도연
얼굴 이미지	진하고 긴 속눈썹 인형 같은 얼굴 정수리에 양감을 준 다양한 헤어스타일 긴 플레퍼 스타일에 헤어피스 사용	작고 귀여운 얼굴 크게 강조한 눈, 흰 피부, 도톰한 입술을 강조한 인형같이 예쁜 얼굴 약간 긴 듯한 웨기 스타일 짧은 파마머리	뱅헤어의 단발머리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들어간 짧은 단발머리 브라운이나 오렌지 계열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패션	선명한 색상 H라인, A 라인 실루엣 신발, 모자, 의상의 색상을 맞춘 토털 룩 다양한 디자인의 모자와 핸드백 화려한 디자인의 귀걸이나 반지 등 액세서리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로 대변되는 다양한 유니섹스 스타일 블라우스나 셔츠에 스커트 악센트 컬러의 머플러	몸매를 강조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실루엣 캐주얼 세미 정장
대표 스타일	 <p>〈그림 1〉 남정임, 어느 여배우의 고백(좌), 1967 - http://www.koreafilm.or.kr 남정임, 성녀와 마녀(우), 1969 - http://www.koreafilm.or.kr</p>	 <p>〈그림 2〉 정윤희, 목마와 숙녀(좌), 1976 - http://www.koreafilm.or.kr 이영옥, 병태와 영자(우), 1977 - http://www.koreafilm.or.kr</p>	 <p>〈그림 3〉 최진실, 아파트(좌), 1995 - http://www.imbc.com 최진실, 질투(우), 1992 - http://www.imbc.com</p>

랄하고 감쪽한 이미지가 많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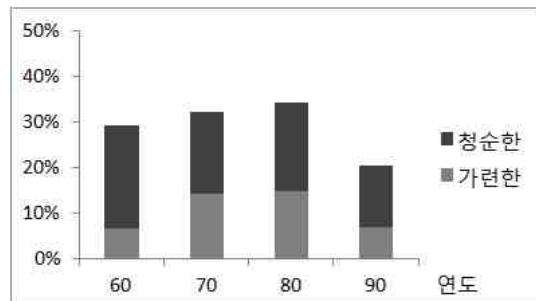
발랄한 여성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대표적 얼굴 이미지와 패션으로는 단발커트, 청바지, 니트, 미니스커트 등이 있다. 1960년대 강조되었던 감쪽한 이미지를 대표하는 여성 스타는 남정임으로, 영화 <초연(1966)>을 비롯한 여러 청춘영화 및 애정영화에서 감쪽하고 발랄한 여성상을 보여주었다. 남정임은 발랄하면서 감쪽하며 당시 유행을 쫓는 젊은 여성상을 외형을 통해 잘 드러낸 배우로, <그림 2>와 같이 부풀려 높은 머리, 바깥 말음 한 긴 플레퍼 스타일에 헤어 액세서리를 사용해 발랄함을 강조하였고, 진하고 긴 속눈썹으로 눈을 인형처럼 표현한 메이크업으로 감쪽한 여성상을 표현하였다. 패션의 경우 1960년대 지배적으로 유행했던 H라인과 A라인 실루엣에 신발과 모자 등의 색상을 의복 색상에 맞춘 토틀룩을 보여주었고, 짧은 치마길기와 빨강, 노랑, 초록, 보라 등 밝은 색상을 통해 발랄한 신세대 여성상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에는 명랑하고 발랄한 여성상이 하이틴 영화와 청춘 영화를 통해 많이 등장했는데, 이러한 영화에 등장하는 여배우들은 아담한 체격에 동그란 눈, 작은 코, 도톰한 입술의 청순발랄한 소녀형이 주를 이루었다. <그림 3>과 같이 대표 여성 스타인 이영옥을 비롯해 1970년대 청춘영화에 출연한 여배우들은 몸에 꼭 맞는 셔츠나 스웨터에 나팔바지나 청바지를 입고 목에 밝은 색상의 스카프를 두른 코디네이션을 통해 발랄하고 젊은 여성의 이미지를 전달했다. 헤어스타일은 웨지 커트, 집시 커트 등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많이 보였는데, 이는 1970년대 유니섹스 패션과 함께 중성적이고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통해 젊고 발랄한 이미지가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윤희도 1970년대 발랄한 여성상을 보여주었는데, 크게 강조한 눈, 흰 피부, 도톰한 입술을 강조한 전형적인 1970년대 화장법을 사용한 인형같이 예쁜 얼굴에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넣은 짧은 파마머리로 발랄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1990년대에는 트렌디 드라마의 유행과 함께 귀엽고 톡톡 튀는 발랄한 여성상이 인기를 끌었다. 대표적 여성 스타는 최진실과 전도연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최진실은 <그림 4>와 같이 뺨헤어의 짧은 단발머리에 헤어밴드나

스카프, 모자 등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메이크업은 브라운이나 오렌지 계열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 짙은 브라운이나 레드컬러의 립스틱으로 입술을 강조했다. 패션의 경우 몸매를 강조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의상, 캐주얼 스타일, 세미정장 스타일을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했다. 발랄한 여성미의 시대별 얼굴 이미지와 패션의 구체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2. 청순한 여성미

청순한 여성미는 대표적 4가지 여성미 중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꾸준히 나타난 여성미다. 특히 1980년대까지는 한국 여성 스타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청순한 여성미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여성 스타를 통해 표현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이상적 여성미로 받아들여졌다.

청순한 여성미는 세부적으로 청순한/청초한/깨끗한/투명한 등의 형용사를 통해 표현되는 청순한 이미지와 가련한/가냘픈/여린/얇전한 등의 형용사를 통해 표현되는 가련한 이미지로 구성된다. 시대에 따른 청순한 여성미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5>와 같이 시대에 상관없이 청순한 이미지와 가련한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함께 나타나 청순가련한 여성상은 계속 존재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했는데, 이는 1990년대 다양한 여성상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청순한 여성미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 청순한 여성미의 시대별 변화

청순한 여성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대표적 얼굴 이미지와 패션으로는 긴 생머리,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 블라우스, 플레어스커트, 레이스 디테일 등이 있다. 1960년대의 청순한 이미지를 대표하는 여성 스타는 문희로 주로 청초하고 순결하며 정숙한 여성상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림 6>과 같이 당시 유행에 맞춰 미니길이 원피스를 입고 등장하기는 했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착용함으로써 청순한 여성상을 표현하였다. 메이크업은 깨끗한 피부 톤에 아이라이너나 인조 속눈썹을 사용해 깊은 눈매를 강조했으

며, 헤어스타일은 주로 어깨를 덮는 약간 긴 길이의 플레퍼 스타일로 청순가련한 인상을 전달했다. 청순한 여성미는 주로 발달한 여성미와 함께 표현되었는데, 197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세시한 여성미와 합쳐진 복합적인 여성상이 등장하였다. 1970년대 한국여성의 사회적 이미지와 메이크업의 특성에 대한 김영희, 박혜원의 연구²⁷⁾에서도 시대가 여성들에게 요구한 이중적인 사회이미지의 영향으로 귀엽고 청순한 요조숙녀의 이미지와 경박하고 퇴폐적인 이미지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배우로

<표 4> 청순한 여성미의 시대별 특성

구분	시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대표적 여성상		청초하고 연약하며 순결하고 정숙한 여성상	청순하고 발달한 여성상 청순하고 요염한 여성상	청순하고 연약해 보이는 여성상	청순가련한 여성상
대표 여성 스타		문희	장미희	원미경	심은하, 이미연
얼굴 이미지		아이라이너와 속눈썹으로 눈을 뚜렷이 강조 어깨를 덮은 약간 긴 길이의 플레퍼 스타일 볼륨감이 강조된 헤어스타일	내추럴한 메이크업 긴 생머리 약간의 웨이브를 주거나 자연스럽게 층을 낸 헤어스타일	아이라인으로 눈을 동그랗고 크게 강조 핑크 색상 립스틱으로 입술을 표현 자연스럽게 웨이브진 파마 스타일	진한 색조는 배제하고 누드계열 색상만을 사용한 누드 메이크업 긴 생머리 헤어밴드 액세서리
패션		실크, 레이스 블라우스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의 원피스 스트레이트 라인의 H형 실루엣	티셔츠와 나팔바지 여성스러운 복고풍 스타일 원피스 무릎길이 스커트에 벨트로 허리를 살짝 강조한 슬림한 실루엣	어깨를 강조하고 허리를 조여 주는 X 실루엣 퍼프소매 블라우스 샤넬 라인이나 미디 길이 스커트 벨트나 작은 리본으로 허리 장식 레이스	몸매를 강조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실루엣 니트, 블라우스 무릎길이 플레어스커트
대표적 스타일		 <그림 6> 문희, 슬픔을 외면할 때(좌), 1970 - http://www.koreafil.com 문희, 초우(우), 1966 - http://www.koreafil.com	 <그림 7> 장미희(좌) - 여원, 1977년 6월호 장미희, 겨울여자(우), 1977 - http://www.koreafil.com	 <그림 8> 원미경(좌), 1981 - 여원, 1981년 6월호 원미경, 사랑과 진실(우), 1984 - http://www.imbc.com	 <그림 9> 심은하, 청춘의 덫(좌), 1999 - http://www.koreafil.com 심은하, 마지막 승부(우), 1994 - http://www.imb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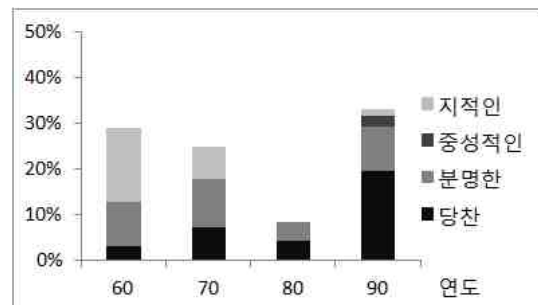
장미회를 들 수 있는데, 1970년대 장미회는 아직 소녀티를 벗지 않은 순수한 모습과 적극적인 성적 개방성을 동시에 가진 여성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1970년대 암울했던 사회상을 반영한 호스티스 영화가 억압된 사회분위기로부터 일탈과 자극을 원하고 순결을 강요받던 세대들에게 윤리적 금기를 깨는 대리만족을 안겨주는 한편 여성에 대한 순결을 강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 여성상인 순수하고 청순한 여성미를 동시에 표현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7>과 같이 얼굴 이미지와 패션은 주로 내추럴한 스타일로 표현되었는데, 특히 헤어의 경우 흐트러진 듯한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보여주었고, 티셔츠에 나팔바지와 같은 캐주얼 스타일로부터 무릎길이에 벨트로 허리를 살짝 강조한 원피스로 가냘프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했다. 1980년대에는 앳된 얼굴의 청순가련한 여성상이 주를 이루었는데, 대표적으로 원미경이 한국형 외모에 청순가련한 여인상을 구현하는 여배우로 인식되었다. <그림 8>과 같이 아이라인으로 눈을 동그랗고 크게 강조했으며 레드, 핑크 색상의 립스틱으로 입술을 앵두처럼 표현하여 순수한 소녀 같은 이미지를 표현했고, 자연스럽게 웨이브진 파마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다. 패션은 일명 공주풍 패션으로 표현되었는데, 어깨를 강조하고 허리를 조이는 X 실루엣에 리본과 레이스 등을 디테일로 사용하고 퍼프스매와 상의를 풍성하게 표현함으로써 청초하면서 로맨틱한 스타일을 연출했다. 강하거나 중성적인 여성상이 등장하여 인기를 끌던 1990년대에도 청순가련한 여성상이 여전히 나타나 심은하와 이미연이 보여준 청순가련한 여성상은 당시 남성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그림 9>와 같이 수수한 누드 메이크업, 긴 생머리, 다소곳하게 묶은 포니테일에 몸매를 강조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의상을 통해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했다. 청순한 여성미의 시대별 얼굴 이미지와 패션의 구체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3. 세련된 여성미

세련된 여성미는 성숙하면서 지적인 도시여성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여성미로 시대별 신여성상으로부

터 많이 나타났다. 1970년대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변화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커리어 우먼으로 성장하면서 지적이고 세련된 여성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사회문화적으로 다원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회적 가치관도 서구적으로 변화되면서 여성 스타들의 이미지도 청순하거나 여성스럽거나 섹시한 이미지에 한정되었던 것로부터 벗어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여성상이 등장하였다.

세련된 여성미는 학구파의/똑똑한/이지적인 등의 형용사를 통해 표현되는 지적인 이미지, 당당한/자신감 넘치는/도전적인/신세대의 등의 형용사를 통해 표현되는 당찬 이미지, 프로의/현대적인/철저한 등의 형용사를 통해 표현되는 분명한 이미지, 선머슴 같은/중성적인 등의 형용사를 통해 표현되는 중성적인 이미지로 구성된다. 시대에 따른 세련된 이미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그림 10>과 같이 1960년대에는 주로 지적인 이미지가, 1970년대에는 지적이면서 분명하고 당찬 이미지가 주를 이루다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당찬 이미지가 증가했고, 그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중성적인 이미지가 등장했다.






<그림 10> 세련된 여성미의 시대별 변화

세련된 여성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대표적 얼굴 이미지와 패션으로는 주로 뚜렷한 이목구비의 서구형 얼굴형, 짧은 커트나 단발머리, 진한 메이크업, 정장 스타일의 패션을 통해 표현되었다. 1960~1970년대에는 주로 고학력의 여성 스타들에게 지적인 이미지가 부과되었다. 1960년대에는 학사 여배우 1호로 인기를 끌었던 엄앵란과 국내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프랑스 유학을 떠나는 과정에서 지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한 윤정희가 대표적이다. <그림 11>과 같이 엄앵란은 주로 귀여운 부잣집 딸이나 청초한 여대생 역할 등을 통해 지적이면서 청순하고 발랄한 이미지의 여성상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눈을 뚜렷하게 표현한 메이크업, 짧은 단발 길이의 플레퍼 스타일, X실

루엣과 H실루엣의 의상 등 최신유행의 서양식 양장 차림을 선보였다. 윤정희는 앞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헤어스타일, 여성스러운 블라우스와 약간 플레어지는 스커트 등으로 지적이면서 우아한 여성상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에는 지적이고 도회적인 이미지의 세련된 여성상이 나타났는데, 부유한 신중간계층

<표 5> 세련된 여성미의 시대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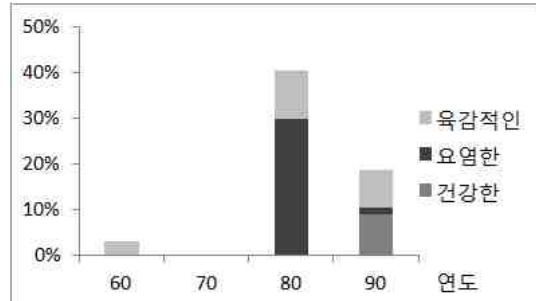
구분 \ 시대	196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대표적 여성상	지적이면서 청순하고 발랄한 여성상 지적이면서 우아한 여성상	지적이고 발랄한 도회적 여성상	강하고 당찬 여성상
대표 여성 스타	엄앵란, 윤정희	유지인	심혜진
얼굴 이미지	아이라이너와 속눈썹으로 눈을 뚜렷하게 강조 짧은 상고 단발에 바깥말음 웨이브를 준 플레퍼 스타일 긴 생머리를 뒤로 묶거나 깔끔하게 빗어 넘긴 포니테일 스타일 헤어핀 액세서리	크고 동그란 눈, 가는 눈썹, 작고 붉은 입술 이마를 가린 듯한 바람머리 스카프, 헤어 리본 등 헤어 액세서리	길은 메이크업 각지고 진한 눈썹 레드, 브라운 계열의 입술화장 앞을 세운 자존심머리 짧은 커트
패션	최신유행의 서양식 양장차림 X실루엣 H실루엣 A실루엣 텐트 실루엣의 샤넬라인 코트 과하지 않은 디테일 장식과 액세서리 장갑과 모자 액세서리	세련되면서 지적인 정장 스타일 셔츠블라우스, 미디 길이 스커트, 힙 길이 재킷 트렌치코트 팬츠 슈트 정장	스커트 정장, 바지 정장 등 정장차림의 오피스 룩 미니멀 룩 어깨를 약간 과장시킨 재킷 블랙, 무채색 비비드한 포인트 컬러
대표적 스타일	 <p><그림 11> 엄앵란, 맨발의 청춘(좌), 1964 - http://www.koreafilm.or.kr 윤정희, 옥비녀(우), 1968 - http://www.koreafilm.or.kr</p>	 <p><그림 12> 유지인(좌) - 여원, 1979년 5월호 유지인, 경찰관(우), 1978 - http://www.koreafilm.or.kr</p>	 <p><그림 13> 심혜진, 결혼이야기(좌,우), 1992 - http://www.koreafilm.or.kr</p>

출신의 지적인 여성 이미지의 유지인이 대표적으로 주로 부유한 가정의 대학생, 전형적인 역할과 결혼을 거부하는 자의식 강한 여성으로 많이 등장했다. <그림 12>와 같이 화사한 메이크업을 통해 새침하고 도도한 분위기를 강조했고, 헤어스타일은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바람머리에 스퀘프, 헤어리본 등의 소품을 활용해 활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당시 대다수의 여배우들이 주로 여성스럽고 발랄한 스타일의 의상을 주로 착용했던 데 비해 유지인은 셔츠블라우스, 미디길이 스커트, 헝겊이 재킷, 트렌치 코트, 팬츠 슈트 등 세련된 패션 스타일을 주로 착용했다. 1990년대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가에 따라 커리어 우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강하고 당찬 여성상이 등장했다. 이관이, 이경희²⁸⁾의 연구에서도 20대 여성들이 1980년대에는 차분하고 지적인 지성미를 추구하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당당하고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을 지향하는 세련미를 이상적 여성미로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과 같이 강수연과 심혜진이 대표적 여성 스타로 활동적으로 보이는 커트나 단발머리에 앞머리를 스프레이로 바짝 세워 올렸고, 내추럴한 화장보다는 진한 메이크업을 통해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패션의 경우 어깨가 약간 과장된 재킷과 슈트를 통해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밖에 1990년대 X세대가 신세대로 등장하면서 개성 있는 마스크에 툭툭 튀면서 솔직한 중성적인 여성상이 등장하는데, 신은경이 대표적으로 다듬지 않은 것 같은 자연스러운 쇼트 커트, 옅은 화장, 소년 같은(boyish) 패션을 통해 표현됐다. 세련된 여성미의 시대별 얼굴 이미지와 패션의 구체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4. 섹시한 여성미

섹시한 여성미는 시대에 따라 의미와 표현방식 모두 가장 많이 변화한 여성미로 1980년대부터 여성 스타를 통해 본격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1960~1970년대에는 섹시하다는 의미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섹시한 여성미가 이상적 여성미로 제시되지 않다 1980년대 여성 스타를 통해 섹시한 여성미가 확산된 이후 1990년대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림 14〉 섹시한 여성미의 시대별 변화

섹시한 여성미는 세부적으로 요염한/요기어린/개방적인/퇴폐적인 등의 형용사를 통해 표현되는 요염한 이미지, 성적매력의/욕감적인/글래머러스한 등의 형용사를 통해 표현되는 욕감적인 이미지, 건강미/건강한 등의 형용사를 통해 표현되는 건강한 이미지로 구성된다. 섹시한 여성미의 표현양상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그림 14>와 같다. 1970년대에도 호스티스 영화가 번성하면서 여성이 영화 속에서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성적 매력에 대한 묘사가 사용되었지만, 장미희나 정윤희 같은 여성 스타들에게 섹시한 이미지보다는 청순가련하고 청순발랄한 형용사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섹시한 이미지는 1970년대 이상적 여성미로 등장하지 않았다. 1980년대에는 요염하고 욕감적인 이미지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1980년대 사회 개방의 물결을 타고 성적 본능을 자극하는 성애영화들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영화 속에서 창녀, 요부, 팜프파탈 등의 역할이 많아지면서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여성 스타의 성적 매력에 대한 자극적인 묘사가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80년대까지는 요염한, 욕감적이라는 수식어가 주로 에로배우나 작품 속에서 과감히 노출했던 여배우들에게 적용된 반면, 1990년대에는 욕감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를 통해 섹시한 여성미가 표현되면서 당당한 섹시함, 건강한 젊음, 신체 건강한 등의 의미가 부여되어 긍정적인 여성미로 변화하였다. 1988년 이후 한국 대중문화에 표현된 스타의 패션 이미지를 연구한 강정민²⁹⁾의 연구에서도 여성 스타의 섹시한 이미지가 1990년대 후반에

〈표 6〉 섹시한 여성미의 시대별 특성

시대 구분	1980년대	1990년대
대표적 여성상	청순하고 요염한 여성상 요염하고 육감적인 여성상	건강하고 당당하며 섹시한 여성상
대표 여성 스타	이미숙, 이보희	김혜수
얼굴 이미지	눈매를 강조한 메이크업 떨이 들어간 화려한 색상의 아이 메이크업 핑크색 립스틱 자연스러운 웨이브의 짧은 단발머리 풀어헤친 듯한 롱 헤어 파마 스타일	아치형 눈썹 볼륨 있게 그린 입술화장 완벽한 피부화장 층진 긴 생머리 부분 염색
패션	어깨를 과장하고 허리를 조인 X실루엣 몸매를 드러내거나 허리 라인을 강조한 의상 비치는 시스루 소재, 광택 소재 타이트한 슬림 라인의 미니스커트 빅 스타일 티셔츠에 타이트한 스키 팬츠	몸매를 드러내는 바디컨셔스 룩 깊은 슬릿이 들어간 스커트 타이트한 부츠컷 팬츠
대표적 스타일	 <p>〈그림 15〉 이보희(좌) - <i>여성동아</i>, 1987년 9월호 이미숙, 바람난 도시(우), 1985 - http://www.koreafilm.or.kr</p>	 <p>〈그림 16〉 김혜수(좌) - <i>경향신문</i>, 1997년 6월 5일 김혜수(우) - <i>경향신문</i>, 1995년 7월 8일</p>

접어들면서 대중에게 수용도가 높아졌고, 이후 여성 스타의 털털하고 과감한 섹시 이미지로 변화하였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한국 여성의 이상적 여성미 중 섹시한 여성미가 시대에 따른 의미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고찰된다.

섹시한 여성미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얼굴 이미지와 패션을 살펴본 결과, 시대별로 섹시한 여성미의 의미가 변화하면서 외적 표현방식이 변화하였다. 1980년대 섹시한 여성미를 대표하는 여성 스타로는 이미숙과 이보희를 꼽을 수 있다. 〈그림 15〉와 같이 이미숙은 까무잡잡한 피부와 육감적인 눈매를 강조

한 메이크업에 어깨를 과장하고 허리를 조인 X 실루엣 의상을 통해 성적 매력이 은근히 돋보이게 표현했다. 이보희는 떨이 들어간 화려한 색상으로 눈을 강하게 표현하고 강한 웨이브를 준 풀어헤친 듯한 롱 헤어 파마 스타일로 화려한 분위기를 강조했다. 패션의 경우 타이트한 슬림 라인의 미니 스커트, 타이트한 스키 팬츠 등 신체를 드러내거나 몸에 달라붙는 실루엣의 의상을 자주 착용했다. 1990년대 건강한 섹시미를 대표하는 여성 스타는 김혜수로, 〈그림 16〉과 같이 완벽한 피부화장에 가는 아치형의 눈썹, 볼륨 있게 그린 입술은 과감하고 당당한 이미지를

표현해주고, 헤어스타일은 긴 생머리에 층을 많이 주거나 브릿지 염색을 한 화려한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다. 패션의 경우 대체로 몸매를 드러내는 실루엣의 의상이 주를 이루었고, 몸에 피트 되는 부츠컷 청바지 등을 통해 섹시하면서도 활달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섹시한 여성미의 시대별 얼굴 이미지와 패션의 구체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시대적 변화와 대중매체에 나타난 대표적 한국 여성 스타의 얼굴 이미지와 패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여성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여성미의 시대별 변천특성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별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얼굴 이미지와 패션을 고찰한 결과, 1960년대는 사회전반에 걸친 변혁이 이루어진 시기로 획일화되고 평균화된 복식문화가 빠른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보급되었고 여성들은 과도한 볼륨감을 표현한 헤어스타일, 뚜렷한 얼굴윤곽을 표현하기 위한 서구식 입체 메이크업, 미니스커트를 비롯한 서구식 패션이 유행하면서 인공적인 여성미가 주를 이루었다. 1970년대는 베이비붐 세대가 성장함에 따라 청년 문화가 발전하면서 통기타 가수, 청춘 영화와 전 세계적인 유행의 영향으로 청바지가 청년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캐주얼한 유니섹스 룩과 함께 머리 모양과 화장 기법도 자연스럽고 가벼워진 자연적인 여성미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980년대는 컬러TV의 보급이 의식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 생활문화 패턴을 변화시키고 화려하고 밝은 색상이 유행해 패션과 메이크업에 큰 영향을 미쳤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국제적인 교류가 증가되면서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화려하고 서구적인 여성미가 등장한 시대이다. 1990년대는 문민정부의 수립과 대중문화의 성장으로 급변하는 시기로, 신세대라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여성상이 등장했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탈 유행의 시대라 불릴 만큼 정형화된 스타일이 사라지고 여성들은 패션 잡

지나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인의 특성과 취향을 추구한 개성적인 여성미가 나타났다.

둘째, 한국 여성의 이상적 여성미는 발랄한 여성미, 청순한 여성미, 세련된 여성미, 섹시한 여성미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발랄한 여성미와 청순한 여성미는 1960년대 이후 모든 시대에 걸쳐 한국의 이상적 여성미로 제시된 반면 세련된 여성미와 섹시한 여성미는 시대에 따른 의미와 표현방식에 변화를 보였다. 세련된 여성미는 시대별 신여성상으로부터 많이 나타난 이미지로 1960년대에는 주로 고학력 여성 스타를 통해 지적인 여성상이 세련된 여성미로 작용했으며, 1970년대에는 지적이면서 자의식이 강한 도회적 여성상이 세련된 여성미로 받아들여졌다. 1990년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가에 따라 커리어 우먼들이 증가하면서 강하고 당찬 여성상이 세련된 여성미를 대표하게 되었다. 섹시한 여성미는 1980년대부터 한국 여성의 이상적 여성미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오염하거나 육감적이라는 형용사를 통해 표현된 섹시한 여성미는 부정적인 측면을 띠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과감한 노출을 했던 여배우나 에로배우에게 사용되거나 청순하지만 오염한 이미지와 같이 다른 이미지들과 혼합되어 사용되다,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섹시한 여성미에 당당한 섹시함, 건강한 젊음, 건강미 등의 이미지가 추가되면서 긍정적인 여성미로 변화하였다.

셋째, 얼굴 이미지와 패션을 통해 표현된 이상적 여성미를 시대별로 살펴본 결과 1960년대에는 모든 여성미가 진하고 긴 속눈썹, 인형 같은 얼굴, 플레퍼 헤어스타일, H라인이나 A라인 실루엣 의상 등을 통해 표현되어 여성미에 따른 얼굴 이미지와 패션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1970년대에는 청순한 이미지와 발랄한 이미지가 주로 내추럴한 메이크업, 긴 생머리, 티셔츠에 나팔바지, 복고풍 원피스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세련된 여성미의 경우 바람머리, 팬츠 수트 등 다른 여성미와 다소 차별화된 특성을 보였다. 1980년대에는 화려한 메이크업, 풀어헤친 듯한 퍼머넌트 스타일, 어깨를 과장하고 허리를 조인 X 실루엣, 신체를 드러내거나 몸에 달라붙는 의상 등을 통해 섹시한 여성미가 표현된 반면 청순한 여성미는 퍼프스매

블라우스, 레이스, 리본장식 등 공주풍 패션으로 표현되어 차별화된 특성을 보였다. 1990년대에는 단발머리에 캐주얼 정장을 통해 발랄하고 친근한 여성미가, 긴 생머리에 블라우스와 무릎 길이 플레어 스커트를 통해 청순가련한 여성미가, 짙은 메이크업에 짧은 커트와 바지 정장을 통해 강하고 당찬 세련된 여성미가, 짙은 메이크업에 층진 긴 생머리와 몸매를 드러내는 의상을 통해 건강하고 당당한 섹시한 여성미가 차별화되어 나타났다. 이처럼 1960~1970년대에는 이상적 여성미가 얼굴 이미지와 패션을 통해 차별화되어 전달되지 못한 반면, 1980~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상적 여성미에 따른 얼굴 이미지와 패션의 차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통하여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여성 스타들의 얼굴 이미지와 패션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시대적 맥락과 관련된 이상적 여성미의 특성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여 온 사회, 문화적 환경을 통해 여성의 이상적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해 왔으므로 여성미의 변천을 규명하는 것은 현대 여성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상적 여성미에 따른 연출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시대극의 재현, 스타마케팅 전략자료, 이미지 컨설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관이, 이경희 (2003), 여성잡지를 통해본 이상적인 여성미 연구 -80년대, 90년대 기사를 중심으로-, *복식*, 53(8), p. 66.
- 2) 김용미 (2000), 해방이후 한국 화장 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윤영 (2002), 한국 여성의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190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영 (2002), 한국 여성의 토탈 패션에 관한 연구: 1900년 이후 메이크업, 헤어, 의복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순숙, 김순녀 (2008), 1960년대 한국 여성의 헤어스타일 분석,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4(1), pp. 51-58.
박선영 (2009), 향장에 나타난 연도별 메이크업 이미지 변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영희, 박혜원 (2008), 1970년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이미지와 메이크업 특성 연구, *패션비즈니스*, 12(4), pp. 99-113.
- 4) 이하나 (2010), 1970년대 한국의 이상적 여성상과 패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정소영 (2004), 할리우드 스타의 패션 아이콘 -1930년대-1950년대 여성스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성윤 (2008), 감성세대 여성아이콘의 이미지 스타일: 미국 미디어를 리드한 여성스타 8인에 대한 사례연구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강정민 (2007), 한국 대중문화에 표현된 스타 패션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연진 (2008), 대중문화의 뷰티아이콘 연구: 2000년대 국내뷰티아이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오순숙, 김순녀, *op. cit.*, pp. 51-58.
- 8) 이상희 (1982), 다양성과 주체성의 문화적 조화, *정신문화연구*, 13, p. 53.
김희숙 (2000),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문화 비교연구, *복식*, 50(1), pp. 85-96.
김순심 (1991), 우리나라 복식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16, pp. 141-148.
김중원, 정중현 (2001), *우리영화 100년*, 서울: 현암사, p. 259.
- 9) "'유행 30년' YWCA 여성변천사 강연" (1975. 7. 17), *조선일보*, p. 5.
- 10) 이승연 (2006), 한국영화로 보는 시대별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김희숙, *op. cit.*, p. 95.
- 12) "경기는 대구에서 비롯된다" (1978. 4. 27), *조선일보*, p. 2.
- 13) 고부자 (2001), *우리생활 100년* 옷, 서울: 현암사, p. 256.
- 14) 간문자 (2001), 해방 이후 서울의 패션 풍속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22(2), pp. 744-745.
- 15) "가을의 뉴모드" (1971. 9.01), *조선일보*, p. 7.
"'유행 30년' YWCA 여성변천사 강연", *조선일보*, p. 5.
- 16) "'아름다워지는 계절' 울봄의 의상" (1976. 2. 19), *경향신문*, p. 4.
- 17) 김경순 외 (2000), *Make-up II*, 서울: 청구문화사, p. 43.
- 18) 김영인 (2004), *한국여성의 색조화장*, 서울: 도서출판 국제, pp. 28-29.
- 19) 신혜순 (2008), *한국패션 100년*, 서울: 미술문화, p. 98.
- 20) 전경옥 외 (2006), *한국여성문화사3*,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연구소, p. 226.
- 21) 고부자, *op. cit.*, p. 291.
- 22) "핑크 봄의 빛깔은 하나일까" (1984. 2), *여성동아*.
- 23) 김용미, *op. cit.*, p. 48.
- 24) "여성들 'IMF패션'은 바지정장" (1998. 4. 2), *동아일보*, p. 2.
- 25) "다크컬러로 차분한 가을 분위기 연출" (1998. 9), *여성동아*, p. 196.
- 26) 김용미, *op. cit.*, p. 79.
- 27) 김영희, 박혜원, *op. cit.*, pp. 111-112.
- 28) 이관이, 이경희, *op. cit.*, p. 78.
- 29) 강정민, *op. cit.*, p. 114.